



보도시점 2026. 9. 18.(금) 11:30 배포 2026. 9. 18.(금) 09:00

조용범 차관, 구로구 가족센터 방문

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함께 뒷받침

- 조용범 차관, 「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」으로 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
- 다문화 가족 지원 현장 간담회, 움툼학교 한국어수업 참관 및 송편·과일 등 추석 음식 나누며 가족의 의미와 포용의 가치 되새겨

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9.18일(금), 가족 간 유대와 이웃간 나눔이 더욱 뜻깊어지는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인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하였다.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·돌봄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(성평등부)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,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구로구 가족센터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
< 가족센터 현장방문 개요 >

- ▶ 일 시: '26.9.18.(금) 10:30~11:30
- ▶ 장 소: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(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25)
- ▶ 참석자: (정부) 기획예산처 차관, 재정집행과장, 성평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등 (기관)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장, 구로구 가족센터장 등

성평등가족부의 「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」 사업은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, 부모교육, 다문화가족 국내 정착·경제적 자립 및 위기 가족 지원 등 가족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. '26년 예산은 1,514억원으로 8월말까지 1,501억원(99.1%)이 집행되었다. 금일 방문한 구로구 가족센터는 '06년 개소 이후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, 자녀 교육·돌봄지원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이날 조 차관은 구로구 가족센터의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 관계자들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에 따라 기초학습 지원뿐 아니라 진로탐색·정서지원 등 지원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으며, 지역별 가족 구성과 수요 차이를 반영하여 가족센터가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아울러 가족센터 내 주요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하여 ▲아이돌봄사 특별교육 ▲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▲다문화자녀 대안교육기관 ‘움툼학교*’ ▲공동육아 나눔터 ‘텀블키즈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다. 이날 움툼학교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참여하는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어 수업을 참관하고 청소년들과 준비한 송편과 과일을 함께 나누며 추석을 앞두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.

* 움툼학교 : 이주배경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

조용범 차관은 “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지고 있지만, 모든 아이가 충분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”며, “가족센터가 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 또한, “다문화가족 지원은 개별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,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 1,620억원(+7.0%)을 편성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”임을 언급하였다.

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주요 재정사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,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재정의 집행 현황과 개선 과제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처	기획예산처 재정집행과	책임자	과 장	김남희 (044-214-32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혜 (misjuly@korea.kr)
			사무관	남동현 (totozl@korea.kr)
			사무관	신형진 (hj8147@korea.kr)
	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윤아 (02-2100-6321)
		담당자	사무관	전병길 (pass7102@korea.kr)